



이상목 소장에게 듣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쟁력 갖춘 미래를 준비하다

‘제조업의 위기’란 말이 여기저기 떠돈다. 최근 조선업과 중공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조선·중공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은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뿌리산업 진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선장을 바꾸고 조직을 새 정비한 뒤 뿌리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부임 1년을 맞은 이상목 소장을 만나 제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미래 전략을 들어보았다.

Q.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많은 뿌리기업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2011년 7월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앞서 언급한 뿌리기업의 영세한 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을 진흥시키고자 2012년 3월에 설립됐습니다. 설립 이후엔 뿌리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뿌리기술을 첨단화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부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장님의 경영 철학과 그동안의 운영 소감을 들려주세요.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느꼈던 점은 업무인력과 비교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탓에 혼자 빠르게 일처리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어떻게 하면 조직문화를 바

꿀 수 있을지 고민했죠. 저의 경영 철학은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이것을 되새기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가치를 정립하면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부임 후 가장 먼저 이것부터 만들었습니다. 센터의 핵심가치는 ‘슈퍼올로 다 함께 가자’입니다. 전문성과 따뜻한 동료 정신으로 책임감 있게 과업을 수행하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인재상을 정립하고 교육·평가·보상 제도를 도입해 조직문화를 바꿔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소장으로서 매우 뿌듯합니다.

Q. 뿌리산업기술연구소, 지역뿌리기술사업단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뿌리산업 컨트롤타워입니다. 사령탑으로서 유관기관과는 밀접하게 협업